

示하였다. 各層의 遞減率은 塔身에 있어서 一層以上이 크며 屋蓋部는 작아서 安定感을 보인다. 頂上에는 相輪이 細部를 보이고 있는데 露盤은 그 위의 覆鉢이 커서 작게 보이며 그 隅角에는 花瓣裝飾이 달려 있고 椽竿에는 七輪이 表示되었으므로 그 위에 仰覆花瓣紋의 寶蓋形이 있고 頂에는 龍車 寶珠와 鉞形尖端이 있다. 다시 寶蓋에서 最上層 屋蓋의 隅棟끝에 連結된 左右二條의 索上에는 鈴鐸과 舌形까지 表示되었다. 全體에 있어 高峻한 形態를 보이는 것은 多層이라는 것以外에 三角形의 細長함에서 온 듯하다. 裏面下部에는 鈕를 中心으로 그 右側에 二行 左端에 一行의 銘文이 縱書陰刻되었는데 小楷字로서 다음과 같다.④

羅州戶長子迫郎諸詞昌直昇主甫

三咏疎深道人道雲帝同心鑄成年峇

壬寅一月一日鑄成

此品은 三角塔印이라고 傳稱實用되어오던 것인바 그 由來에 關하여서는 「兩說이 있어 一은 羅末 崔致遠 同時 智異山 馬跡寺에 馬跡道士가 있어 信徒中心의 「어음」으로 使用한 것이라 하며 他一은 嚴川寺 戒壇法堂에 比丘戒를 設하고 戒牒授與時에 戒牒에 捺印하여 受戒의 信憑으로 使用되었다 하는바 모두 羅代遺物이라고 傳한다」⑤ 그러나 塔樣式이나 銘文으로 미루어 高麗下代인 西紀十三世紀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이같은 高古한 金屬製 塔印은 現存하는 稀貴한 遺例로서 同代의 金屬製 工藝小塔과 더불어 注目할 만하다. 全長 三四·五cm 下幅 一〇cm

註 ① 「雍正十三年乙卯四月日 山陰王山寺中 鍾鍾成 化主 祐證 緣化 秩... (鍾銘) 高 六六cm

② 法堂에는 木造阿彌陀佛坐像이 유리箱子內에 安置되어 있는바 그 年代에 關한 記錄은 다음과 같다.

「乾隆十九年甲戌四月十五日 敬造彌陀聖像于 湖南玉果縣聖德山觀音寺 五月五日 奉安于 嶺右威陽府嚴泉寺法華庵」坐高 六六·五cm 膝幅 四四·五cm

③ 朝鮮美術大觀 第二部影鑄圖版十一에 보이는 銅製十三層工藝塔이 이樣式과 類似하다.

④ 此品은 同行이었던 釜山大丁仲煥教授에 의하여 再調되었는바 發

第一卷 第三號 通卷 三號

表를 期待하는 바이다.
⑤ 同寺住持의 回報에서 引用하였는데 調査便宜를 마련하여 주신 鄭寅燮教育監과 休川國民學校長 鄭淳龍氏와 더불어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靈山 法華庵의 靑石塔

金正基

慶南 昌寧郡 靈山面 九溪里에 있는 法華庵은 東北面境에 處은 靈鷲山의 南쪽 山麓에 있는 庵子이며 元來는 山頂 가까이 位置하였던 것이 三·四年前 中腹으로 移建되었다 한다.

이 寺刹은 立刹부터 廢 寶林寺에 屬하였다고 傳하며 現在 불만한 佛像·佛具는 없고 本尊으로는 李朝末로 보이는 高約四五cm의 觀音菩薩座像을 南向하는 小佛堂에 奉安하고 있을 뿐이다.

이 法堂 西南方에는 보기 드문 小石塔이 混凝土로 만들어진 臺石上에 놓여 있어 瓦塔이라고 俗稱되고 있다. 이 石塔은 元來의 蹟에 있었던 것을 移置한 것이나 現住持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도 他處에서 옮겨져 놓인 것이라고 한다. 塔은 現在 基壇의 上下 各一石과 屋蓋石七, 塔身石一만 남기고 靈盤을 代身하여 風化磨滅한 石質이 다른 自然石이 놓여 있다.

石材는 鳥石이라고 불리며 黑色 粘板岩이며 基壇은 佛壇과 類似한 形態였다고 생각되며 下石은 重瓣의 蓮花文,



